LOCAL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 ‘도시재생’ 새옷 입은 강진 병영면 ‘활기’

## 주민·청년 공동체 회복…로컬브랜딩 사업 추진

## 불금불파·청년기업 관광·문화 콘텐츠 등 선봬

강진군이 병영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키워가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병영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신한금융그룹 협력사업인 로컬메이트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특히 병영면은 노후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었던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로 투입되면서 주민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침체한 공간이 재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군은 ‘문화를 창조하고 마을을 살리는 신(新) 병영상인’을 주제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병영면 마스터플랜과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월에는 병영 시장에 상생플랫폼 홍보관을 준공하며 로컬브랜딩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병영면의 특화 음식인 연탄돼지불고기와 EDM 공연, 마을 투어를 결합한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를 3년째 이어오며 지역의 활기를 더하고 있다.

올해는 이 성과를 확장해 행안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도 강진군 기업들이 선정됐다. 병영면을 무대로 활동하는 청년기업과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화 관광·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문화기획과 서비스 디자인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년기업 포트컴(대표 김민엽)은 프컬브릿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약용과 하멜의 유배 스토리 등 강진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상품 ‘유배케이션’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유배케이션은 12일부터 14일, 26일부터 28일까지 2회차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의 빈집 마을호텔과 연계해 추진된다.

또 다른 선정기업 ㈜배력(대표 김휘은)은 양조장 투어, 술 빚기 체험, 시음회 등을 통해 강진산 농산물과 전통주를 결합한 지역 특화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영면은 도시재생으로 기반을 다지고, 로컬브랜딩으로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이제는 로컬메이트 사업을 통해 청년과 민간이 주도하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행정과 주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적 지역 활성화 모델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 ‘신안1004몰’ 특별기획전 운영

## 군, 17~30일 최대 30% 할인

신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30일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https://shinan1004mall.kr/)에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알뜰한 명절 준비 기회를, 지역 생산자들에게는 판로 확대 및 경제 활성화의 장을 마련한다.

기획전은 17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신안1004몰에 입점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풍성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상품별로 최대 10%에서 30%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매 금액별 적립금 행사를 통해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만원 적립금이 지급된다. 이 혜택은 20명 한정으로 진행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ns@

## 진도, 추석맞이 고향사랑 이벤트

## 내달 9일까지 기부자 50명 추첨

진도군이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위해 10월 9일까지 ‘추석엔 진도愛 한가위 기부 이벤트’를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내에 10만원 이상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며, ‘진도아리랑몰 포인트’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전복, 김, 홍주, 울금, 구기자 등 진도의 특산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월 10일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발표되고,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풍성한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나주시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 출범

## 지역 축산인 숙원…소비자 인지도 향상 기대

나주시가 지역 축산인의 숙원이었던 한우 자체 브랜드를 공식 선포하며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나주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의 출시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겪어왔다.

브랜드 부재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걸림돌이었다.

이에 시와 나주축산농협은 지난해 7월부터 ‘나주 한우 브랜드 개발 용역’을 공동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나주들애찬한우’라는 이름을 개발해 지난해 8월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들애찬한우’는 ‘들에 가득 찬 한우’라는 뜻으로 나주의 황금 들판과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나주의 이미지를 담았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 축산인들이 정성껏 키운 한우가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된 뜻깊은 날”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상필 나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축산인의 숙원이던 한우 브랜드가 탄생해 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판로 개척을 확대해 ‘나주들애찬한우’가 나주를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 ‘달달한 무화과 파티’에 방문객들 반했다

### 영암무화과축제에 5만명…포토존·직거래 장터 등 호응

영암군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주제로 한 축제에 관광객들이 대거 찾아오며 성황을 이뤘다.

10일 군에 따르면 최근 3일간 전남농업박물관에서 열린 ‘2025 영암무화과축제’에 5만명이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입안 가득 달달! 신나는 무화과 파티!’를 구호로 영암 무화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축제장에 마련된 대형 무화과 모형 포토존, 무화과 거리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맛과 멋이 어우러진 행사를 이끌었다.

특히 관광객들은 싱그러운 분위기를 전하는 관상용 무화과 화분을 보며 대한민국 무화과 시배지이자 주산지인 영암의 정취에 빠져들었다.

축제장의 무화과 직거래 장터는 신선한 무화과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였고, 준비된 물량이 조기에 동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 빵, 라떼, 곤약 젤리, 잼 등 이색 가공품들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무화과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무화과 그림 그리기 대회, 무화과 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의 흥을 돋웠고 어린이 풀장, 비눗방울 놀이, 조랑말 체험, 전통놀이 등을 통해 가족 방문객에 추억을 전했다.

김상일 삼호읍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에서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화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

화순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3차례에 걸쳐 총 94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1차 36명 입국을 시작으로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환영 행사와 함께 인권·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해 근무 기간 중 지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영 행사에서는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구급상자 등의 기념품 전달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한글 이름 달아주기 시간을 가졌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군에서 일하는 동안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근무하시길 바라며, 화순은 고인돌 유적지 등 아름다운 명소가 많은 곳이니 틈나는 대로 둘러보며 좋은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완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완도군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해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는 온라인(완도군 누리집–참여 민원)으로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은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